

전매광장



최영태

한반도미래연구원장·전남대 명예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일본 기업의 한인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자신의 해법이 1998년 '김대중-오부지 선언(21세기 한일 파트너십)'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집권 여당과 보수 언론은 김대중 대통령도 국회의원 시절인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때 야당과 대학생들의 반대 투쟁과는 달리 한일국교 정상화를 지지했다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의 한일 외교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에 유리한 내용 추진

윤 대통령이나 보수 진영의 주장처럼, 1964~65년 박정희 정부가 한일국교 정상화를 추진할 때 김대중 의원은 큰 틀에서 국교 정상화를 지지했다. 김 의원은 북한과 공산권의 위협에 대처하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시 야당과 대학생들이 한일 국교 정상화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상황에서 야당 소속인 김대중 의원의 국교정상화론은 그의 정치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큰 모험이었다. 김 의원의 가족들이 밖에서 '사구라' 의원의 아내와 자식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김 의원의 부친이 하의도에서 서울로 올라와 시중의 비판적 여론을 직접 전달하며 아들을 걱정했다는 이야기

김대중의 외교, 윤석열의 외교

는 그때의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말해 준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보수 진영이 눈여겨봐야 할 것은 김대중 의원이 왜 그런 주장을 펼쳤는가이다. 김대중 의원이 1964~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문제에 임한 입장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국제정세의 큰 흐름으로 봤을 때 한일국교 정상화는 필요하다. 둘째, 야당은 찬·반의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일기본조약의 내용을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만들 것인지에 관심을 갖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야당과 대학생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기본협정은 체결되었다. 그런데 내용에 문제가 많았다.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도 받아내지 못했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배상금은 터무니없이 적었다. 김대중은 한일기본조약의 내용을 보고 한탄했다. 정부의 무능과 야당의 대책 없는 강경론 모두를 겨냥한 한탄이었다.

그로부터 33년이 지난 1998년 '김대중-오부지 선언'이 있었다. 김 대통령이 주도한 이 한일 외교에서 일본은 처음으로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외교문서에, 그것도 한국을 직접 지칭해서 명기했다. 일본 정부가 이런 조처를 취한 배경에는 수평적 정권교체로 상징되는 한국의 민주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력이 있었다. 특히 일본은 김대중 대통령 개인의 민주화 경력에 대한 신뢰와 존경, 그리고 1965년 김대중 대통령이 한일국교 정상화를 지지한 실용주의적 외교노선에 높은 평가를 하고 있었다. 또 김 대통령이 일본 문화 개방조치를 취한 것도 일본에 좋은 인상을 줬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김대중-오부지 선언'이 나왔다.

그런데 윤석열 외교는 김대중 외교로부터 별로 배운 것이 없는 것 같다. 김대중 대통령은 외교에서 실질적 내용을 중시했는데 윤석열 외교에는 일방적 양보만 있다. 우리가 양보했으니 일본도 무언가 해줘야 한다는 당위론과 일본 쳐다보기만 있다. 대통령과 참모의 대일관과 외교력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의 목표는 일본과의 친선과 함께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이었다. 김 대통령은 한·중·미·일 4강 외교의 정상화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남북문제를 풀려고 했다. 그가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에게 북한 방문을 권유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북한 봉쇄' 전략 국익 영향

윤석열의 외교는 정반대이다. 즉 윤석열의 대일 외교는 일본과의 외교 정상화를 통해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북한을 봉쇄하려는 것이다. 한일관계 정상화를 강권한 미국의 목표는 더 원대하다. 한미일 동맹 강화로 중국 봉쇄망을 구축하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이런 목표가 우리나라 국익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제대로 계산을 하고 행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김대중의 대일 외교와 윤석열의 대일 외교 사이에는 목표와 성격, 내용 모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 그리고 보수 언론이 김대중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적인 대일 외교를 변호하기 위한 소재로 삼는 것은 잘못된 인용이며 번지수가 크게 벗어난 비교이다.

푸른 바다를 위하여

출하기 그지없는 그 평화가 늘 꾸어오던 꿈처럼 낮았고 편안했다.

한참을 그렇게 취해 있다가 정신을 가다듬고 현실로 돌아와 보니 정지되어 있는 그 장면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 역시 미지의 새로운 물결을 따라 열심히 흐르고 있는 중이었다. 과학의 상징물인 불과 도구를 벌써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인간의 발전 의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한 역사를 만들어가며 휘몰아치고 있다. 그 좋은 마당에서 시작한 인류의 삶이 지구를 넘어 드디어 우주까지도 드나들고 있다. 당연히 태생지인 둘지를 떠나야 하는 일이 찾아졌고 남의 둘지까지 찾아들어 삶의 터전으로 삼아야 하는 일도 많다. 마치 온갖 생물들이 영역 구분 없이 자유로이 유영하는 바다와도 같다.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절실했을 때이다. 서로 다른 인정해야 하고, 소통을 위한 언어도, 문지도, 상대방의 문화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내 둘지에 찾아온 철새들의 아름답고 구슬픈 노래를 정확히 듣기 위함이며, 또한 내 노래를 진실하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지구가 돌아가고,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기록되듯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은 각각 그 시대에 주어진 사명 의식을 자연스럽게 부여받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도량과 시내를 지나는 물이 있는가 하면, 좀 더 넓은 강을, 또는 이미 드넓은 바다에 다다른 물도 있다. 세상의 모든 물들은 서로 합수하며 끊임없이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황망한 바다가 싫어 도란도란 정감이 넘치는 도량과 시내로 아무리 돌아가고 싶어 해도 그저 그리움일 뿐이다. 태양이 눈 부시게 비추는 날, 아름다운 수증기로 승화하여 비가 되길 소원해야 한다. 그때까지는 다난하지만 푸르고 평화로운 바다를 위해 선하고 수다분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한다. 다행히 바다에는 긴 여로에서 묻혀온 오염들을 중화시켜줄 염분이라는 정화제가 있다.

소수자여서, 언어소통이 되지 않아서, 다른 문화에 소외되어서 외로움과 고독에 떨고 있는 이들이 없는지 유심히 돌아볼 일이다. 지리산이라는 큰 삶의 바다에서 철새인 할미새에게 둘지를 빌려주며 오순도순 살아가는 터줏대감 딱새의 모습이 새삼 생각나는 날이다.

당신을 지키는 경보음, 주택용 화재경보기

화재경보기의 케이스를 천장에 나사로 고정시킨 뒤, 화재경보기 본체와 본체의 내부 전원 장치를 서로 연결한 후 본체와 케이스를 나사식으로 돌려 부착해 설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점이 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이 글을 보면서 생각하길 바란다. 돈? 보석? 중요한 서류?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정답은 바로 당신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구출해야 하는

/장홍석 영암소방서 영암119안전센터장

에세이



탁현수

수필가·문학박사

고향에 있는 고인돌박물관에 다녀왔다. 고인돌의 축조 방법과 다양한 양식은 물론 무덤이라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관람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둘러보다가 선사인들의 생활상을 재연해 놓은 움집 앞에 다가가는 순간, 무엇엔가 불잡히기라도 한 듯 우뚝 멈추어 서고 말았다. 모닥불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작은 마당에서 정성을 들여 도구(돌도끼, 그물주, 돌화살 등)를 만들고 있는 아버지, 지극한 손길로 곡식의 낱알들을 고르고 있는 어머니, 땅감을 나르며 천진하게 넘노니는 두 아들들… 햇살같이 맑은 그들의 모습에 끌려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 조출하고 단

독지광장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3년 간 쓴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꽃 향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봄이 됐다. 하지만 향긋한 봄의 이면에는 항상 화재라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그중 주택화재는 인명피해에 직결돼 가장 큰 걱정거리다.

최근 5년간 화재현황을 보면 주택화재가 전체 화재건수의 21%를 차지하는 반면 사망자의 비율은 57%를 차지해 주택화재가 인명피해와 직결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주택화재는 대부분 우리가 잠든 심야에 발생하며, 다량의 유독가스와 함께 빠르게 연소 확대돼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간다.

우리 지역에도 주택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다행히도 지난 2월 학산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화재경보기의 경보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 신이 귀중한 목숨을 구하는 사례가 있어 기습을 쓸어내릴 수 있었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그 설치 방법도 간단해

대상 또한 당신이다. 제발 위험한 상황에서는 당신만을 생각하고 가장 먼저 불이 나면 대피하기 바란다.

나와 그리고 우리 동료 소방관은 결코 슈퍼맨이 아니다. 엄청난 화마 속에서 당신을 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당신을 생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존재는 당신이다. 화재 경보기의 경보를 들었으면 당장 당신의 집에서 대피해라!

/장홍석 영암소방서 영암119안전센터장

1989년 6월 29일 청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姜聲秀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5-7721	사업국	(062) 720-1011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광고국	(062) 720-1016~17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관리국	(062) 720-1012
사회부	(062) 720-1050	편집부	(062) 720-1073		
사회2부	(062) 720-1043	뉴미디어본부	(062) 720-1006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chol.com

구독료 월 10,000원(1부 500원)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그 설치 방법도 간단해

시설

지역 '의료 소외' 돌파구 없는가

광주와 전남지역이 의료 분야에서도 심각한 차별과 소외를 받고 있음에도 이를 타개 할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광주에는 공공의료원 견립, 전남에는 국립의과대 설립이 거의 지상과제처럼 떠올라 있다. 공공의료원의 경우 다음달 중으로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1년 국회에서 광주의료원 설립에 대한 설계비 예산을 반영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예타 재조사를 실시했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전남 의과대의 경우 의과대 설립을 위한 의정협의체가 재가동 돼야 하지만 잠정 중단된 상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어 이런 지경에 놓여있다. 의협이 본격적인 투쟁 체제로 전환하면서 당분간 협의 재개동이 난망이어서 암울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의료원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광

주와 울산에만 있고, 의과대는 전남에만 없다. 무슨 이런 의료정책이 있는지 탄식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와중에 공공의료원의 예타 재조사가 통과되더라도 수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 확보가 문제여서 견립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견립 예비 부지인 상무지구 일대 도심용합특구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의과대 또한 전남에 들어서야 하는 것은 당위이지만 전남 동부와 서부지역 가운데 어디로 가야할지 지역 내부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은 지난 수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절실히 느껴왔다. 전남지역의 의과대 설립은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할 정도로 지역숙원 사업이다. 교육과 함께 의료 분야는 지역 발전의 거대한 축을 형성한다. 공공의료원과 의과대 설립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매우 긴요하고 필수적인 사업들이다. 광주와 전남의 불행한 역사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각자체와 정치인, 지역민이 다시 한 번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다.

전남 문화예술품·유물 관리 서둘러라

전남의 문화예술품과 유물들이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하는 등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지역 고분 등에서 출토된 유물 상당수가 수용공간이 없어 이리저리 채이고 있고, 전남 도청사 내 수장고에 쌓인 작품들마저도 곰팡이가 피거나 빛이진 채 널브러져 있는 것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 산하기관인 전남문화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출토유물은 총 3,741점(임시보관 3,318점, 학술자료 403점, 참고자료 14박스)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암 내동리 쌍무덤 등에서 발굴된 도자기 파편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중 구슬류와 금장 목걸이 등 2,800여점은 현재 나주 국립박물관에 대여해 전시중이다. 나머지 500여점은 문화재단 내 연구소 유물 정리실과 보존과학실에 임시보관 중이다. 하지만 분지 취재결과, 보고서 작성 전 등 사유로 아직 국가에 귀속되지 않거나 학술·참고자료로 분류된 나머지 유물들은 옛 전남지사 공관으로 사용됐던 도청 인근 '수리재' 한켠에 덩그러니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전남도청 수장고에서 쌓인 한국화 등 작품들 역시 상당수가 본래 모습을 잃은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술한 문화예술품과 출토 유물 관리는 '예향'이라 불리는 전남의 낯부끄러운 현실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함평의 광주 편입 요구에 쓸리는 관심

기자수첩



길용현

정치부 차장

3월 들어서만 함평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세차례 열리는 등 함평이 유력 이전 후보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군공항과 함께 민간공항 동시 이전이 추진돼왔던 무안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전 작업이 새 국면을 맞은 것이다. 특히 함평에서는 군공항 이전을 조건으로 함평의 광주시 편입 등 구체적 방법론까지 확산, 주목도를 높인다.

함평군